

# 大學의 時間講師

全 信 旭

(漢陽大 行政問題研究所)

大學의 時間講師가 專任敎員으로 채용되려면 대학이 요구하는 資格要件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대학측에서는 채용상의 公正性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時間講師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講師料 調整이 先行問題로 제기되고 있다.

## I. 序 言

우리나라는 歷史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敎育에 대한 열의가 相對적으로 강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오고 있는 經濟開發計劃이 좀더 成功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것도 역시 그 동안의 蓄積된 敎育을 통한 人的 資源의 풍부성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人的 資源은 解放以後 우리 나름대로의 敎育計劃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歷史적으로 볼 때 解放後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대학생의 수는 놀랄 정도로 增加하였고, 大學敎育의 普及 또한 質的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役割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大學數의 增加 및 學生數의 增加는 이러한 量的인 팽창과 더불어 敎育의 內容도 專門化가 이루어져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 사

람이 '60년대 이후 國家經濟發展과 社會發展에 이바지해 왔다.

이상과 같은 論理에서 볼 때 敎育의 重要性은 간과할 수가 없으며 특히 이러한 敎育을 시키기 위한 專門機關으로서 대학의 役割이 重要하게 된다. 그러던 대학이란 무엇을 추구하며, 그 本質的인 機能은 어떠한가? 대학이 추구하는 理念은 이른바 아카데미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카데미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sup>1)</sup> 원래 아카데미란 B.C. 387년 古代 그리이스의 哲學者인 플라톤이 세운 學校 또는 학원이라고 할 '아카데미아'에서 나온 말이며, 以後 12~13世紀에는 유럽 각 地域에 생긴 神學部 中心의 대학 또는 그 대학이 있는 地域을 가리킨다. 그러나 17世紀에는 유럽 各國의 王室이 學問·藝術의 育成 등을 위해 王立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아카데미라는 말은 여러 가지 意味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결국 아카데미란 學問, 藝術가

지도 포함한 大學을 중심으로 하는 研究 또는 학술 단체를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아카데미즘이라 하면 大學과 같은 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 연구의 運動이나 경향 또는 方法論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傳統的으로 이어 내려오는 축적된 知識과 정보를 基盤으로 하여 專門分野에서 사전에 정한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연구실 中心으로 지속적으로 研究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카데미즘은 大學과 同意的인 것이며 또한 대학이 지향해야 할 本質的인 理念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大學의 理念的인 요소는 그것의 실천이 필요한데 이것이 大學의 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大學이 機能을 하려면 그 構成要素로서의 教育者 즉 教授가 필요하게 된다.

교수라 함은 社會現實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專門的인 지식을 전달하면서 교양을 갖춘 人格者를 함양시키는 것이 그 役割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자로서의 教授는 專門的 知識의 전달자인 동시에 人格 함양자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고도의 知識 傳達로서의 '教育'과 고도의 知識 開發로서의 '研究'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렇게 볼 때 教育者로서의 교수의 評價는 순수히 學問的인 立場에서 그가 얼마만큼 知的 好奇心을 갖고 眞理에 봉사하며, 얼마만큼 성실히 그것을 학생들에게 傳授하고 있는가에 基準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大學이란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기관이며, 그것이 機能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役割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이란 理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실에 입각한 眞理를 발견하는 科學者(scientist)로서의 役割遂行 能力을 배양시키는 곳이고, 知識의 실천으로써 社會의 價値와 正義를 추구하고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으로서의 役割을 강조하는 곳이며, 生活 속에서의 규범과 도덕을 지키는 生活人을 기르는 곳이다. 따라서 教育에서의 大學의 役割은 중요한 것이며 더구나 대학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즘 이외에도 대학의 교수 기능도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理念的인 要素로서 아카데미즘의 문제는 論外로 하고 大學의 기능 수행자로서의 教授, 특히 時間講師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時間講師의 의존도와 專任教員으로서의 채용 문제, 강사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本稿에서는 筆者의 약간의 경험과 紙上을 통하여 밝혀진 기존의 사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時間講師에의 依存度

大學의 權威란 大學의 구성원인 우수한 교수의 充員과 學生의 所屬意識 및 忠誠心에서 비롯되며 또한 대학의 권위는 대학의 質과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大學에서의 교수 확보율은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要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수의 여하에 따라서 教育의 효과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教授의 확보 문제는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바의 목적, 즉 知識人, 시민, 生活人의 資質 함양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사람의 教授가 소수의 學生을 지도할 때에는 교수, 학생간의 人格的 유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학생의 教育效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을 指導해야 하는 경우에는 人格的인 유대가 연약해지기 쉽고 더구나 教授가 많은 학생을 담당하게 되고 여러 分野에 걸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教育效果도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여기서 담당하는 강의시간의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서의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比率이 어떠한가를 우선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대학교육현회의회에서 調査한 資料<sup>3)</sup>에 따르면 大學의 外來講師에 대한 時間依存도는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98개교 중에서 그 依存도가 10% 이하가 6.1%, 11~20% 이하가 27.6%, 21~30% 이하가 19.4%, 31~40%가 30.0%, 41~50% 이하가 12.2%이며 50% 이상의 時間을 강사에 의존하는 대학도 5.1%, 즉 5개교나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을 다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비교해 볼 때 단과대학이 종합대학보다 강의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私立大學과 國·公立大學으로 나누어 볼 때 私立大學이 國·公立大學보다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시간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배종근 교수의 調查報告<sup>4)</sup>에 따르면 그 依存度를 系列別로 볼 때 藝·體能系의 경우 3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人文·社會系 25.3%, 師範系 22.4%, 理·工系 19.7%, 其他 15.1%, 醫·藥學系 12.8%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83年度 현재 大學의 專任教員 確保率은 醫·藥學系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藝·體能系와 人文·社會系가 가장 낮은 水準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시간강사의 수자가 專任教員의 3분의 2에 이르고 大學에 따라서도 전임교원의 수를 웃도는 경우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大學의 外來時間講師들에 의한 講義時間 依存度는 그 程度가 다소 심한 程度로 풀이될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充員問題를 제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資格要件을 정비하여야 대학의 시간강사가 專任教員으로서 채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 Ⅲ. 시간강사의 資格要件

대학의 教授는 美國의 경우 이른바 '테뉴어(tenure)'니, 1年 契約制나 해서 그 特權이 제약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教授終身制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즉 教授가 公的인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전임강사에서 教授 終身직까지 사실상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制度下에서 우리의 大學들의 전임교수 채용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면 解放 직후에는 大學의 교수진이 中學校 敎師들에 의해 많이 충당되어졌고 20여 년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대학의 碩士學位證만 있으면 大學에 쉽

게 진출할 수 있었다. 불과 10년 前까지는 外國의 碩士學位證만 가지면 쉽게 大學教授에의 畧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현재에는 博士學位만 있으면 大學進出은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면 좀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학 시간강사들이 大學教授가 되려면 어떤 資格要件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무엇보다도 大學院에서 碩士學位證 以上을 받으면 그 基本要件이 갖추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碩士學位의 소지자들에게 대학 강의를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大學院은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으로 통상 分類할 수 있고 이 兩大學院의 졸업생들은 공히 碩士學位證을 취득할 수 있는 資格이 있게 되지만 專門大學院生은 말 그대로 純粹學問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分野의 專門知識을 중심으로 學業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充員 資格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편으로 대학원 卒業者の 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大學院 擔當教授의 數를 보면 大學의 교수진보다도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대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의 한 예로 1980년 「教育年鑑」에서 지적한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大學院 專任教授의 부족과 地方간의 격차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직접적으로 대학원교육의 질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이들 대학원으로부터 배출된 碩士學位 所持者들이 質적으로 낮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결국에는 대학 강사들의 質의 水準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대학의 質的 向上과 教育效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맡고 있는 교수진 등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앞으로 教授를 희망하는 시간강사들이 스스로 학문적 자세를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느냐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학이나 대학 강사들의 꾸준한 학

구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IV. 專任教員으로의 採用問題

다음으로 논해야 할 것은 時間講師들이 갈망하는 專任教員으로의 採用 문제이다. 대학의 專任教員 充員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韓相範 教授의 견해<sup>6)</sup>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社會에는 미국처럼 學습을 單位로 하는 能力別 교수선발의 장소인 教授市場 中心의 學者의 교류나 선반 과정이 결여된 데다가 大學 사이의 폐쇄주의적 기풍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즘의 전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학과 아닌 파벌 중심의 편견적 장벽이 쉽게 관을 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데미즘에서 학과가 아닌 파벌을 가지고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최근 전임교원 충원 방식을 간단한 一例로서 본다면, 大學의 專任教員의 채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최근에는 주로 博士學位 所持者를 中心으로 採用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보면 博士學位를 지녔고 講師經歷이 2년 이상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現象은 대학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데도 전임교원 채용을 가급적 피하기 때문인 것이며, 더구나 대학은 문호가 좁아 채용상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정실’이 많이 작용하는 채용 풍토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時間講師라는 직업은 現職 教授와 비교해 볼 때 주어진 시간의 강의를 하기 위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投入하여 講義를 하고 있으며 그 資格要件을 갖춘 경우가 충분한 때도, 위와 같이 대학측의 사정 및 여러 가지 要因으로 쉽게 充員이 되지 못하고 있다.

以上的 것을 종합해 볼 때 모든 대학이 그러한 것은 아니나 대학의 充員計劃上의 문제와 充員 과정에서 實力 이외에도 人脈·地脈이 充員에 무엇보다도 크게 作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當局은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計劃을 분명히 세워 학생의 比率에 따라 또는 필요한 연구 분과에 따라 전임

교원 초빙을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充員過程에서도 인맥, 지맥보다는 충분한 강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할 것이다.

#### V. 講師料 問題

대학에서 講義를 맡고 있는 專任教員들은 방학중이나, 국경일 또는 학교 행사일에 관계없이 月給을 받고 있다. 그러나 大學의 시간강사들은 그렇지 못한 實情이다. 시간강사들은 現職教授에 못지 않은 강의 준비를 하는데 반해 단지 시간강사라는 명목만으로 그 처우는 현직 교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며, 따라서 언제나 經濟的 불안감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간강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우에 대해서 그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피고용자의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要因으로 인하여 그나마 맡고 있는 현존의 강의 시간까지 박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바, 즉 일전에 「월간조선」에서 時間講師 問題를 논한 바 있는 姜昌民씨도 時間講師가 處遇改善을 위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原因은 첫째는 대학사회의 폐쇄성, 둘째는 강사들의 허울 좋은 선비 정신, 셋째는 集團意識化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7)</sup>

이렇게 볼 때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처우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시간강사들의 月收入은 현재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 보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한 統計<sup>8)</sup>에 따르면 外來講師들의 平均 教授當 時間數는 5.3時間이라 밝히고 있으며, 강사료는 평균 8,585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시간강사의 월 평균 수입은 20만원도 保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時間講師가 經濟的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진리를 탐구하는 學者로서의 役割과 시민으로서 또는 가정 생활을 이끄는 生活人으로서의 役割까지도 위협하는 要因이 된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업으로서의 시간강사의 현실적 심각성을 알게 하는, 1979년에 있었던 모대학의 時間講師가 문교부장관에게 提出했던 탄원서의 內容을 參考로 인용해 보면,<sup>9)</sup>

첫째, 4강좌(주당 12時間)를 基準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둘째, 강사료는 강좌수로 계산해 주며

셋째, 방학이나 국경일도 강사료를 지급하며

네째, 5강좌 이상을 시간강사나 전임교원에

게 맡기지 않도록 法으로 定하며

다섯째, 연구비나 교재구입비를 따로 지급

하여야 하며

여섯째, 상여금을 지급하며

일곱째, 예비군 훈련을 방학 동안에 받게

해 주고

여덟째, 의료보험 혜택을 쓸 것 등

이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다른 표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간강사들의 보수적인 면에서나 기타 요인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교부 및 대학 당국에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準專任敎員과 같은 정도의 報酬水準이 策定되도록 정책적인 方針을 세움으로써 그 處遇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Ⅵ. 結 言

지금까지 대학의 機能이나 役割과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 수행자로서 전임교원이 아닌 특히 시간강사를 中心으로 現存 大學의 시간강사 의 존도 및 時間講師 자신의 資格要件, 採用問題, 보수 문제를 中心으로 보던서 이에 대한 처방책을 간단히 언급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대학교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時間講師들의 문제는 여전히 주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立場에서 本稿에서는 간략하나마 시간강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열거하여 결론을 지으면 다음과 같다.

序言에서 아카데미즘이란 어떤 것인가, 교수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밝히면서 첫째로는

대학의 學生數와 정비례하여 강사 의존도가 深化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大學의 時間講師들의 位置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은 學問의 연구를 자기의 天職으로 할 수 있는 資質과 能力이 갖추어진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여러모로 自體 수정·보완을 하여 나가는 것과 함께 대학 원교육을 正常化시켜야 할 것이며,

셋째, 이러한 질적으로 우수한 敎育을 마치고 大學의 강단에 서게 된 시간강사들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正當한 評價方法에 입각한 채용 기준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고,

네째, 이들 時間講師들에게도 보다 진취적인 學者로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물질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은 現存의 대학 당국이나 문교정책의 뒷받침과 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대학 당국이나 문교 당국도 대학의 機能이 어디에 있는가를 直視하고, 진정한 敎育의 效果를 가져오려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본다. 대학과 문교 당국의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이 존재할 때 대학의 기능은 바람직한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에 따른 시간강사의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

## <註>

- 1) 韓相範, “大學 아카데미즘의 발전과 그 조건”, 「월간조선」, (1981.7), p.76.
- 2) 朴異汶, “한국에서 敎授란 무엇인가?” 「월간조선」, (1982.5), pp.243~250.
-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관계 기본통계 자료」, (1983.9), pp.36~37.
-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年 大學財政·經營評價報告」, (1983.12), pp.27~29.
- 5) 朴異汶, 「前掲書」, p.248.
- 6) 韓相範, 「前掲書」, pp.84~85.
- 7) 姜昌民, “時間講師: 大學의 파출부,” 「월간조선」, (1982.9), p.256.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前掲資料」, pp.40~41.
- 9) 姜昌民, 「前掲書」, pp.256~257.